

케이블산업 경쟁기업에 대한 현금흐름과 레버리지 중심의 경쟁력 분석 – 대한전선과 LS전선

황다현*, 정기만**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학과,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수

e-mai:kmjeong@ut.ac.kr

A Competitive Analysis of Cable Industry Competitors Focusing on Cash Flow and Leverage: Daehan Taihan Cable & Solution and LS Cable & System

Da-Hyeon Hwang*, Kiman Jeong**

*Dept. of Convergence Management, Korea Nat'l Univ. of Transportation, Korea

**Dept. of Convergence Management, Korea Nat'l Univ. of Transportation, Korea

요약

케이블(전선)산업은 국내외 인프라 투자, 전력망 확충,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데이터 센터와 같은 분야의 성장은 고성능 전력 및 통신 케이블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촉진하는 중요 산업이다. 기업 간 재무구조와 경영성과의 차이는 시장 내 경쟁 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변동, 금리 인상 등 외부 환경의 변화는 전선업계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의 현금흐름과 레버리지 특성과 경영성과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평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전선 산업 기업인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현금흐름과 레버리지 중심으로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전선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서론

케이블(전선)산업은 전력망 구축, 통신 인프라 확장,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기간 산업이자 미래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한다. 이는 글로벌 전선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내 전선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여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전력망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향후 기업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은섭, 김경률, 이지웅, 2025). 이러한 흐름 속에서 LS전선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해외케이블과 HVDC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인도·베트남 등 아시아와 미국 오하이오주까지 글로벌 거점을 확대해 전력망 투자 확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합작 해저케이블 공

장과 전용 부두 건설을 통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동시에 ESG 경영을 바탕으로 탄소배출 저감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힘쓰며, 초고압 케이블 기술과 R&D 투자를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LS전선 홈페이지,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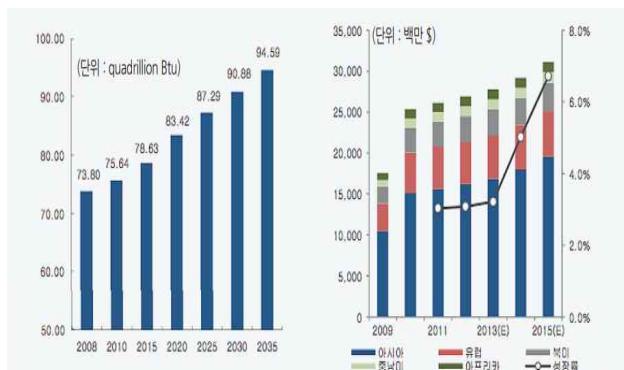
반면 대한전선은 인수합병(M&A)과 초장거리 송전망 사업에 집중하며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독일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 국내 최초 초장조장 전력망 구축, 사우디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 투자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다각화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M&A를 통한 외형 확장은 해외 네트워크 확보와 신규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전선 홈페이지, 2025). 이처럼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서로 다른 전략을 통해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LS전선은 기술력과 안정적 성장을 중심으로, 대한전선은 외형 확대와 시장 선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두 기업의 행보는 국내 전선 산업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기업

의 최근 추세와 현금흐름 및 레버리지 분석 등을 통하여 단순한 기업 간 비교를 넘어, 전선 산업 전반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케이블산업의 현황

2.1 케이블산업 동향

글로벌 전선 및 케이블 시장은 전력 생산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과 인도의 산업화와 전력망 확충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세계 전력 생산은 완만히 증가하며 전선 수요 역시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 시장은 연 2~3%대 성장세를, 신흥국은 연 5%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HVDC 전력 케이블과 광섬유 케이블 수요 확대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정채균 외, 2020).



[그림 1] 세계 전력생산(좌) 및 전력선 시장 규모(우) 전망

2.2 케이블산업 기술 및 혁신

글로벌 전선·케이블 시장은 Prysmian Group(이탈리아), Nexans(프랑스), Southwire(미국), LS전선(한국), Furukawa Electric(일본) 등 주요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Prysmian Group과 Nexans는 해저·초고압 케이블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LS전선은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Southwire는 북미 시장, Furukawa Electric은 광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박지만, 모영규, 2023).

전선 및 케이블 산업은 고효율·고성능화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 케이블은 장거리 전력 전송의 효율성을 높이며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표 1] LS전선과 대한전선 사업부문 비교

구분	LS전선 특징	대한전선 특징
전력 케이블	송전 효율·안정성 강화	전력 인프라 구축 중심
통신 케이블	5G 데이터센터 특화	5G·방송망 포함
특수 케이블	산업 전반 대응 (선박·철도·자동차)	특수 목적 중심 (철도·조선·방위산업)
해저 케이블	초고압·해상풍력 기반 장거리 전송	HVDC·해양플랜트 중심
송전 솔루션	HVDC·ESS (에너지 저장)	스마트 그리드·모니터링

해저케이블은 신재생에너지 연계와 글로벌 전력망 확충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5G와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광섬유케이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재활용 소재 적용, 탄소 배출 저감 등 ESG 기반 기술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친환경 혁신이 산업 시장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	회사명	AC 345~525kV (해저케이블)	DC 500/525kV (해저케이블)
이탈리아	프리즈미안(Prysmian) 	상용화	상용화
프랑스	넥산스(Nexans) 	상용화	상용화
일본	스미토모전기공업 	상용화	상용화
한국	LS전선 	상용화	상용화
일본	후루카와 전기 	개발 중	개발 중
한국	대한전선 	개발 중	-

[그림 2] 글로벌 케이블 제조사의 HVDC 해저케이블 기술 역량

3. 현금흐름분석

LS전선의 현금흐름분석을 살펴보면 2024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6,45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본업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각각 -2,900.5억 원, -3,195.5억 원으로 상당한 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는 617.4 억 원에 불과해 전반적인 유동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력은 긍정적이나 투자 및 재무활동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대한전선의 현금흐름분석을 살펴보면 2024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6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며 본업에서의 현금 창출력이 둔화되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3,871.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유출 규모가 확대되었다.

[표 2] LS전선의 현금흐름분석 주요 항목

(단위: 억 원)

항목	2024	2023	2022
영업활동 현금흐름	6,459.4	711.0	94.7
투자활동 현금흐름	-2,900.5	-1,277.4	-3,063.4
재무활동 현금흐름	-3,195.5	627.0	5,52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617.4	114.4	2,298.2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5,712.1	5,597.7	3,299.5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6,329.5	5,712.1	5,597.7

반면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4,110.6억 원으로 증가하며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는 441.5억 원에 그쳐 유동성 확보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영업활동의 현금 창출력 약화와 과도한 투자 유출이 문제로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표 3] 대한전선의 현금흐름분석 주요 항목
(단위: 억 원)

항목	2024	2023	2022
영업활동 현금흐름	67.5	307.2	-466.0
투자활동 현금흐름	-3,871.1	-573.0	-856.3
재무활동 현금흐름	4,110.6	973.0	1,959.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441.5	721.1	693.0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893.3	2,172.2	1,479.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334.8	2,893.3	2,172.2

4. 레버리지 분석

4.1 레버리지 및 성장성 지표 분석

LS전선의 레버리지 및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부채비율은 2024년 296.9%로 산업평균 133.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25.2%로 산업평균보다 낮아 재무적 안정성에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매출액과 총자산증가율은 산업평균을 크게 웃돌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 매출액증가율은 8.8%로 산업평균 1.9%를 크게 상회한다. 다만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57.5%로 크게 감소해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전선의 레버리지 및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부채비율은 76.6%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산업평균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자기자본비율은 56.6%로 평균을 상회해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차입금 의존도는 16.0%로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나, 이자보상배율이 3.7배로 개선되며 이자 상환능력은 강화되었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매출액증가율 15.7%, 총자산증가율 40.7%로 산업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순이익증가율은 3.2%로 전년 대비 급격히 둔화되어 수익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 4] LS전선의 레버리지·성장성 비율 현황

제목	2024	2023	2022	산업평균
				(2023)
레버리지	부채비율(%)	296.9	228.8	272.6
	자기자본비율	25.2	30.4	26.8
	차입금의존도	31.4	36.6	37.3
	이자보상비율(배)	2.0	1.6	2.7
	비유동비율(%)	124.8	102.9	99.4
성장성	비유동장기적합률	79.4	63.1	58.7
	매출액증가율(%)	8.8	-6.1	13.2
	영업이익증가율	18.1	5.9	-1.1
	순이익증가율	-57.5	3.5	-11.9
	총자산증가율	15.3	3.3	15.0

[표 5] 대한전선의 레버리지·성장성 비율 현황

제목	2024	2023	2022	산업평균
				(2023)
레버리지	부채비율(%)	76.6	97.1	83.7
	자기자본비율	56.6	50.7	54.4
	차입금의존도	16.0	20.8	18.0
	이자보상비율(배)	3.7	3.0	2.3
	비유동비율(%)	48.5	51.9	43.8
성장성	비유동장기적합률	42.1	41.4	34.2
	매출액증가율(%)	15.7	16.1	22.7
	영업이익증가율	44.3	65.7	22.0
	순이익증가율	3.2	229.3	-24.6
	총자산증가율	40.7	15.9	14.0

4.2 LS전선과 대한전선의 레버리지분석

LS전선과 대한전선의 레버리지 지수를 살펴보면 2024년 LS전선의 영업레버리지(DOL)는 2.05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 대한전선은 2.8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무레버리지(DFL)의 경우 LS전선은 2.02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전선은 1.36으로 감소하여 재무적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합레버리지(DCL)는 LS전선이 4.15로 꾸준히 상승해 영업 및 재무레버리지에서 변동성이 확대된 반면 대한전선은 3.84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LS전선은 영업 성과 개선에 힘입어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영업활동의 변동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6] LS전선의 레버리지도

레버리지도	2024	2023	2022
LS전선의 DOL (영업레버리지도)	2.05	-1.0	-0.1
LS전선의 DFL (재무레버리지도)	2.02	2.54	1.59
LS전선의 DCL (결합레버리지도)	4.15	-2.46	-0.13

[표 7] 대한전선의 레버리지도

레버리지도	2024	2023	2022
대한전선의 DOL (영업레버리지도)	2.82	4.1	1.0
대한전선의 DFL (재무레버리지도)	1.36	1.51	1.78
대한전선의 DCL (결합레버리지도)	3.84	6.18	1.74

5. 결론

본 연구는 케이블(전선) 산업의 전반적인 전략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 내 대표적인 두 개의 기업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속한 케이블 산업의 개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각사의 일반적인 현황을 검토한 후 이어서 두 회사의 현금흐름과 레버리지 지표를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그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현금흐름분석에서는 LS전선이 본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였으나 투자와 재무활동에서 과도한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고 대한전선은 차입 의존을 통해 투자 확대를 이어갔으나 장기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제약이 있었다.

LS전선은 영업활동과 성장세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이 한계로 나타났고, 대한전선은 유동성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며, 부채비율 하락과 자기자본비율 상승으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모습이 확인되었다. LS전선은 성장세를 유지했음에도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이 드러났고 대한전선은 단기 유동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지표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재무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레버리지분석 결과 LS전선은 성장 가능성을 확보했지만 변동성이 확대

되었으며, 대한전선은 재무 안정성이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영업활동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기업은 각기 다른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두 기업 모두 공통적으로 현금흐름 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육부와 충청북도 RISE 사업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충청북도 RISE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참고문헌

- [1] 대한전선 홈페이지
- [2] 신은섭, 김경률, 이지웅. 전선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분석 보고서, 한국기업평가, (2025).
- [3] 윤종호. “케이블 경량화를 지원하는 산업자동화 시스템 연결용 Single Pair Ethernet (SPE) 기술.”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40.7 (2023): 9–15.
- [4] 박지만, 모영규. TC20(전력케이블) 분야 산업 동향 및 분석,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원, (2023).
- [5] 정채균, 박홍석, 김민주 외. “.HVDC 케이블 현황 및 시험평가 기술 동향.” 대한전기학회, 전기의 세계 69(12), (2020): 36–42.
- [6] 장영광·송치승 경영분석 6판, 한빛아카데미, (2022)
- [7]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23 보고서, <https://www.bok.or.kr>
- [8] Lo, Huai-Wei, and Sheng-Wei Lin. "Bottom-up green manufacturing strategy in the wire and cable industry: A Z-DEMATEL approach for identifying critical success criteria." Journal of Industrial Information Integration 44 (2025): 100761.
- [9] LS전선 홈페이지
- [10] Marabaeva, Ludmila V., et al. "Features of strategic management of cable industry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21): 1171–1178.